

작품 내용

제 목	존중과 보호가 필요한 개인 보석함
내 용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노래 관련 영상을 보았다. 가수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이라는 곡이었는데 엔믹스가 직접 부른 영상은 아니었다. 이름 모를 AI가 다양한 목소리로 커버한 영상이었다. 그 영상에는 “이 곡을 좋아하는데 색다른 목소리로 들으니까 새롭다”라는 댓글도 있는 반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불러서 그런지 노래의 맛이 잘 살지 않고 어색하며 이상한 느낌이 든다”라는 댓글도 달렸다. 엔믹스의 노래 외에도 요즘 수많은 가수의 AI 커버곡이 올라오며 듣는 사람의 의견도 다양하게 갈리고 있다. 그리고 커버곡의 저작권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EBN 칼럼 뉴스에 따르면 AI 저작권은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 설계 문제라 지적된다. 지금도 국내 가수의 음색을 학습한 AI를 온라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대중들은 이를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반면, 창작자에게는 어떤 보상이나 통제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모두가 익히 알고 있지만 최근 유행하는 AI 커버곡에 대해선 신기함과 색다른 흥미가 그 개념을 이기고 있다. AI 커버곡은 인간의 목소리를 합성해 모방한 새로운 형식의 음악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원곡자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가수, 혹은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의 목소리로 불린 형태로 제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해 국내의 음악 산업 종사자와 실용음악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커버곡의 공정 이용의 개념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31.8%, 인지한 경우는 22.7%로 나타났다. 해외 역시 커버곡의 저작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몰두하고 있다. 인공지능 커버곡에 관해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커버곡의 필요성이 재미 외에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저작자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일단,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저작권은 지켜져야 한다. 현재 소셜 네트워크에 등장하는 커버곡들은 저작자들이 직접 작성한 것들이고 영상 제작자들은 따로 있다.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영상을 만들 때 곡의 저작자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 행위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커버곡이 금지되지 않을 경우, 문화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된다. 가수나 작곡가 및 작사가가 노래를 만들 때 그들의 아이디어, 시간, 비용 등 수많은 노력을 들인다. 그 노력들이 쌓여 새롭고 다채로운 곡들이 생겨나는 것인데 AI 커버곡이 나온다면 그저 복제되는 형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음악 관련 문화 산업 역시 쇠퇴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작곡가 및 작사가들에겐 저작권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저작권 비용’을 받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자 대가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커버곡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재산권에도 악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다.

커버곡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은 기존에 있던 창작물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라 최근 등장한 AI 커버곡 문제를 지적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현재 저작권법에선 권리자의 동의 없이 가수의 고유 음성이나 형태를 모방한 행위에 관해 규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음반 제작자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인공지능 커버곡은 저작물의 복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사용권인 퍼블리시티권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사실 AI 커버곡은 부정경쟁행위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침해 정도를 입증하는 것 역시 어렵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 시, AI에 의한 음성을 무단 사용할 경우에 자신의 영업이나 SNS 광고 수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 다방면으로 발달하면서 음악 산업 역시 AI가 활성화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현재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따라가는 추세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엄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글이나 그림, 사진과 같은 또 다른 창작물에 대해서 해당 법률을 적용하지만 음악에 대해서는 모호하다거나 재미를 위해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저작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별것 아니라 여기며 베껴 갖다 사용하는 이 행동은 타인의 것을 훔쳐 쓰는 명백한 절도이다. 나의 것이 소중하다면 그만큼 타인의 창작물 또한 소중한 것이고 보호받아야 한다. 흥미를 위해 무심코 사용한 인공지능 커버곡 시스템이 남의 노래를 무단으로 훔치는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각자의 개성이 담긴 창작물을 인공지능을 이용해 침범하는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창작자의 소유 보석함을 서로 보호해주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 그날이 기다려진다.